

《르 꼬르뷔제의 손》
한 사람을 이해하고 품는 방법

책도 인연이 있다. 내내 기다렸던 책이 출간되더라도 보지 않고 지나가다가 하면 무심코 집어 든 책을 그 자리에서 다 읽어 버리기도 한다.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듯이 책과의 인연이 때로는 독특한 시각을 형성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얼핏 봐도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법한 두께, 오래 지나지 않아도 쉽게 더러워질 것이 뻔 한 하얀 표지,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과 휘갈겨 쓴 듯 한 붙어 메모. 그에 비해 표제는 제법 공손하다. 《르 꼬르뷔제의 손》의 겉모양을 살짝 설명하자면 이 정도다. 그리고, 반드시 읽겠다는 의지도, 전혀 무관심한 마음도 없었던 이 책의 첫 페이지를 읽어 나간다.

스위스 태생의 건축가 르 꼬르뷔제는 근대 건축운동의 기능주의와 표현주의를 결합한 합목적성을 이룩한 건축가로 꼽힌다. '현대건축의 5원칙'- 필로티 사용, 옥상정원, 자유로운 평면, 긴 창문, 자유로운 입면-을 확립하며 개인의 욕구와 공동체의 욕구를 한 건물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양식을 창안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가 남긴 빌라형 아파트, 라투레트 수도원, 인도의 계획도시 찬디가르는 건축사에 길이 남을 작품으로 불린다.

《르 꼬르뷔제의 손》을 쓴 저자 앙드레 보겐스키는 르 꼬르뷔제와 20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이자 30여 년간 우정을 나누는 친구이다. 책은 위에 나열한 르 꼬르뷔제의 건축학적 업적을 (한 페이지면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을 대 건축가의 면모를) 50편의 글로 소개한다.

호기심으로 책장을 넘긴다. 첫 번째 주제는 '키'. 옛된 모습의 건축과 학생이 한 권의 책을 읽고 르 꼬르뷔제의 사무실로 쳐들어간다. 그는 동경하던 건축가가 자신보다 키가 크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워한다. 그리고 한 시간 반동안 르 꼬르뷔제와 학생은 대화를 나누고 그날 저녁식사 이후로 학생은 르 꼬르뷔제의 스튜디오에서 제도사 일을 시작한다. 바로 저자 앙드레 보겐스키와 르 꼬르뷔제의 첫 만남이었다.

“그날의 손. 그날 르 꼬르뷔제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을 때, 수줍음 많은 학생은 르 꼬르뷔제의 손에 자신의 손을 맡겼다. 그의 손은 큰 손안에 몽땅 감싸졌다. 손이라는 것도 기억이 있을까? 지금 이 책을 쓰면서, 그 학생의 손은 그때 쥐었던 르 꼬르뷔제의 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11p.)



《르 꼬르뷔제의 손》
앙드레 보젠스키 지음 | 이상림 옮김 | 공간사 | 123쪽 | 값 7,000원

첫 만남에서 르 꼬르뷔제의 손에 큰 인상을 받았던 앙드레 보젠스키는 그가 동경하던 건축가가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의 기억을 50개의 키워드 속에 담아낸다. 각각의 글은 앞의 소개한 기억과 이어져 있거나 또는 거장의 모습을 독특하게 설명하는 새로운 키워드를 삽입해 설명하는 형식이다. 저자 앙드레 보젠스키는 오감(五感)을 통해 르 꼬르뷔제를 기억한다. 예를 들어 세브르 35번가의 긴 복도를 따라 걷던 르 꼬르뷔제의 느리고도 규칙적인 발걸음은 1965년 그의 시신을 바라보는 앙드레 보젠스키의 기억 속에서 '정확하고 타협하지 않는 한편 모순적이기도 한' 그의 성격을 나타내는 소리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조용하지만 신경질적인, 권위적이면서 수줍음을 많이 타는 ... 그가" 가까운 동료들을 불러 자신의 설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을 때, 그를 주시하던 저자의 시선은 르 꼬르뷔제의 손으로 옮겨가고, 그때 받은 인상은 곧이어 "근육으로 다져졌지만 움직일 때는 미세하게 떨리는, 무언가를 감싸는 손"이 만들었을 위대한 건축물을 자연스럽게 연상하는 것이다.

앙드레 보젠스키의 건축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이와 연관된 르 꼬르뷔제의 업적을 나타내는 글에는 저자의 관찰력과 거장에 대한 경외심이 깃들여 있다. 르 꼬르뷔제가 설계한 위니테

다비타시옹과 찬디가르는 "건축은 공간의 음악이다"라는 거장의 철학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설명한다.

책의 내용은 대부분 건축과 얽힌 르 꼬르뷔제의 면면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진지하게 다시 살펴보면 저자인 앙드레 보젠스키가 얼마나 뛰어난 관찰력의 소유자인지 느낄 수 있다. 건축은 건축가의 철학이 녹아든 작품이다. 그 사람의 철학적 사유의 과정을 곁에서 진지하게 살피지 않고서는 진정한 철학의 깊이를 알 수 없다. 그리고 당연히 평가할 수 없다. 한 인물에 대한 그 어떤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감상적이지 않되 풍부한 감정으로 뚜렷이 누군가를 묘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다. "사유가 깊고 강할수록 건축적 형태는 더욱 아름답다"는 글처럼, 저자 앙드레 보젠스키는 르 꼬르뷔제를 향한 깊고 강한 애정을 품고 더욱 아름다운 거장의 면모를, 그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다. 책을 덮은 후 시간이 꽤 흐른 후에 역자의 후기를 살펴봤다. 그는 "... 르 꼬르뷔제의 영혼을 느낄 수 있었다"는 글귀를 넣었다. 건축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책을 본 후에는 역자의 말에 동의하게 된다. 그만큼 거창한 감상은 아니지만, 어느 누군가를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추천**

송보경 기자